

배성운.박희정.하영.은영.진옥 가족이

인도네시아에서 드리는 소식

주소: Perumahan Batu alam Permai No.1, Jl. Ir. H. Juanda. RT18. Kel. Air Putih. Kec. Samarinda Ulu. Kota Samarinda. Kaltim, Indonesia.(75243)
Bae Sung Woon (081371806330)
연락처: +62 813 7180 6330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990-014705-092(KPM배성운)

[인도네시아 소식]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Covid-19로 어려움 중에 있는 고국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매일 35,000-40,000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800-1,000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를 비롯한 대도시는 PPKM(긴급사회활동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내는 도시도 하루 25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PPKM이 실시중입니다. 자카르타 지역이 워낙 상황이 좋지 않아 지방 도시는 백신을 맞기가 어려워, 최대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치료하심이 고국과 인도네시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인교회 소식]



저희가 고국에 머무는 기간에 하나로 교회는 매 주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근에 예배를 인도해 주실 분이 없어서, 주일 오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한 공간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다른 기쁨을 주셨습니다. 한국, 사마린다 그리고 자카르타 이렇게 다른 장소에 있었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7월 11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상황이 좋지 않아, 모든 종교의 예배가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지만, 무스림의 강한 반대 때문인지 온라인 예배가 의무는 아니라고 정책이 변경되어 저희는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드립니다. 저희 도시는 모든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무스림에서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 구제헌금을 통해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 어려움을 겪는 현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2명의 목회자 가정에 생활비를 후원했고, 20명의 성도들에게 생필품을 후원했습니다. 하나로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HANARO MAJU ABADI 법인 소식]



현재 코로나 상황이 급변하여 준비하던 현장 사역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개학을 준비하던 모든 학교도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Rosy 자매의 장학금 수여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대학 학비를 후원하며, 영육 간에 훈련 되어진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Rosy 자매의 첫 번째 학기 학비를 후원해 주신 구재형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역을 시작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는 현지 성도들에게 생필품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사역을 시작합니다. 10 명의 고등학생들



을 선발하여, 학비를 후원하며 이 땅에 필요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매월 25 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글 학교 사역은 현장 강의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현재 공부 하기 원하는 현지인들을 모집 중이고, 모집이 끝나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합니다. 한글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족이야기]



저희 가정은 5-6월 약 두 달 정도 한국에서 쉼을 가졌습니다. 큰딸의 졸업식과 대학 입학에 필요한 준비, 그리고 저희 부부의 건강검진을 위해 귀국하였습니다. 하영이는 호주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호주도 현재 입국이 어려워 한국에서 우선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문이 열리면 호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영이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후원해 주신 교회와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은형이는 이제 고3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욱이는 저희와 인도네시아로 들어왔습니다. 진학한 고등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려고 했지만, 다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선생님, 친구들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만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1년 반 만에 아이들과 만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웠던 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훌쩍 커버린 아이들로 인해 감사하면서도 힘들 때 함께 해 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자라 주어 감사합니다. 특히 진욱이는 혼자 지내다가 누나 형을 만나 즐겁게 보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건강검진을 통해 필요한 약을 처방받아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러시아에서 잘 못 치료한 이가 많이 상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발치만 하고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가격리 기간에 지낼 수 있도록 부 목사관을 제공해 주신 고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고제교회, 모든민족교회, 제주선한길교회, 창원 중앙동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사역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국에 있는 동안 안식관을 제공해 주신 창원 중앙동교회와 차량을 제공해 주신 유재웅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찾아와 주시고 교제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찾아뵙지 못한 교회와 후원자님들께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분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1.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가정되게 하소서.
2. 사마린다 하나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하나로 법인을 통해 준비하는 사역(한글 사역, 장학사역)들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4. 인도네시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현지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5. 함께 동역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준비하는 사역들이 열매 맺게 하소서.
6. 배성운 박희정 선교사가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7. 적자 재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을 만나게 하소서.